제2호
2013년 5월 6일 (월)
www.dtvkorea.org

발행인 : 길환영
편집인 : 정화섭
취재 : 조현국, 장지훈, 정승원, 양보람

DTV KOREA
digital television

(사)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4층
전화 : 02-3219-6355
구독신청 : dtvkorea.org@gmail.com

19세대이하 공시청 무료지원 시범사업 본격 궤도 진입

지상파 DTV 수신율 제고와 보편적 서비스 확대 계기

취약계층 주민들 무료서비스에 높은 호응

19세대이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DTV KOREA가 시행하고 있는 공시청 무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불과 2개월만에 '19세대이하 공동주택의 공시청 시설 무료 지원 시범 서비스'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청 지원 신청 접수는 사업이 시작된 3월 통틀어 300여건에 미치지 못했지만 4월 30일 현재 1,400단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5월 중순이면 2,000개 이상의 단지에 공시청 시설 무료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19세대이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도 분명치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공시청 시설비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들 주택 거주자들은 공시청 시설비를 주민들과 절반씩 부담하여 공시청 시설을 지원해온 '디지털 시청 100% 재단'과 DTV KOREA의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됐었다. DTV KOREA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19세대이하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매체 선택권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부터 공시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세대이하 공동주택의 공시청 시설' 지원 대상은 19세대이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구성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택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www.dtvkorea.org)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거주자들의 대표성 입증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거주민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하며 무료지원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비율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해 연말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등 전국 7개 지역 17,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접수신율은 2.3%에서 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DTV KOREA는 지난해 연말부터 150세대 이하 아파트에 대한 공시청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DTV KOREA는 지상파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청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지상파 공시청 시설의 보수 및 수선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시청자서비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시청 설비 개보수 사업 안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 당신도 무료로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DTV KOREA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시청 설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4세대 이상 ~ 19세대 이하 : 공사비용 100% 지원**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구성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2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 : 공사비용 50% 지원**

• 문의 및 신청: 1644-1077 (DTV KOREA 콜센터)
02-781-2501 (디지털시청100%재단)

토론회

시청자를 위한 '지상파 DTV 활성화 방안'

침체에 빠진 지상파 디지털방송 플랫폼의 활로를 찾고 시청자 복지 확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DTV KOREA가 주최하고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시청자를 위한 지상파 DTV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4월 2일 열렸다.
한편 지상파 4사 기술부문장들은 최근에 지상파 가변 다채널방송 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부가적 방송서비스 기술 확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협약했다.

일시 : 2013년 4월 2일 화요일 오후 3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 한진만(강원대학교 교수)

발제1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DTV 활성화 방안
-발제자 : 김광호(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상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다매체, 다채널과의 경쟁에서 점점 공공성을 잃어가는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서비스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방송의 혜택이 국민 대다수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현재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소득격차에 따라 시청자의 디지털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좋은 화질, 전파 재원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

발제2

지상파 DTV 활성화 구현기술 및 실험방송 결과
-발제자 : 박선규(KBS)

실험방송 송출 현황 모니터링과 수신기 송수신 정합 및 필드테스트를 실시해 정상적으로 송수신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보급된 상용 DTV 수상기 오동작 여부를 점검 결과 오동작 사례가 없었으며, 현재 HD 방송 화질과 비교했을 때 HD 화질을 보장하는 방송 운영이 가능하다.

-토론-

강형철(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디지털 전환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디지털의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고화질 서비스는 이런 문제고, 두 번째로 다채널 서비스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아날로그 주파수를 상업적 활용만 한 것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으로 했던 목표, 왜 했냐는 것이다. 했더니 돈만 더 들었다. 해일이 밀려오니까 피해야 한다. 돈을 더 내라. 이게 무슨 문제냐면 OECD 국가 중에서 다채널 서비스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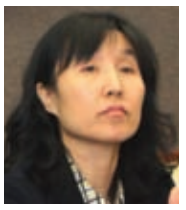
노영란(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의 기대효과를 이야기 하면서 고화질 서비스, 다채널, 양방향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케이블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고화질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채널 서비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약속했던 다채널 서비스는 도입돼야 한다.

정윤식(강원대학교 교수)

지상파 방송이 위기인데, 몇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다. 미국, 일본, 영국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다채널 추진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각 방송사의 이해관계 조절, MSO와 지상파 방송사와의 관계 설정, 시청자를 위한 배려, 무료 보편적 서비스 측면 등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강혜란(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지금 진정성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10년 후에 지상파가 어떻게 궤멸해가는가,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위축돼 가는가를 기억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상파 사업자가 공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난시청 해소가 선행과제이며 현재 시점에서 강한 반성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이익을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 또한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기고

지상파 전파를 아껴 쓰는 방법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방송 내용에 불만이 있을 때 '전파낭비'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막장 드라마, 불공정한 뉴스, 나눠 먹기식 연말시상식, 주요 스포츠경기 중복 편성 등에 전파자원을 버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시청자나 방송담당 신문기자들이 쓰는 '전파낭비'는 '시간낭비'나 '전기낭비' 쯤의 의미인 것 같다. 아마도 전파의 가치를 바로 안다면 정색을 하고 겨우 5개 채널을 보기 위해 이를 쓰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다. 그것도 현재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안테나를 달아 지상파 방송을 보는 가구가 7% 안팎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현재 지상파 디지털전환 후 남게 된 700MHz 대역 활용 방안을 놓고 경제적 가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통신연구원의 분석으로는 700MHz 대역의 국민소득 창출효과는 약 49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1MHz 당 연평균 부가가치로 환산해보면 방송은 51억원, 이동통신은 738억 원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같은 대역의 경매 낙찰에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AT&T가 약 20조원을 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미 700MHz 아래에서 수백 MHz에 이르는 대역폭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파의 경제적 기회비용은 막대할 것이다. 그러나 전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 문화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의 활용을 상업영역에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서유럽국가 대부분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채널수가 수십 개에 이르는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 문화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전파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처럼 "디지털 시대가 열렸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전에 보던 채널을 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유료방송에 가입해야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무료채널의 확대라는 신기술의 '혜택'이 아니라 방송 유료화라는 '부담'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상파 전파를 종료하고 저소득층에게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나마 위기상황에서 지상파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는 것이 현재 지상파 전파에 대한 한국사회의 선택인 것 같다.

이러한 기현상의 밑바탕에는 '난시청'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유료방송이 확대하는 시기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수신환경 개선은 방기한 채 수신율도 높이고 재송신비도 받는 일석이조의 이익만 좇아 왔다. 그나마 KBS는 수신료 인상 명분 때문에 직접수신률 제고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썼으나 다른 방송사들은 그럴 동인을 갖지 못했다. '직접수신가구의 희소화'는 재전송 문제뿐만 아니라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사회적 차원에서 전파낭비를 막는 일임과 동시에 지상파 방송사로서는 다채널 · 다매체 환경에서도 리더십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시청자 파편화 현상 속에서 지상파방송의 주시청층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다. 더 많은 채널로 다양한 시청층을 만족시키는 독자적 플랫폼이 없이는 과거의 영예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상파 방송사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합하는 일이 중요하다. 과거처럼 개별적으로 자기 채널의 송신상태만 책임지는 방식이면 곤란하다. 시청자는 한 방송사의 채널만 잘 안 잡혀도 유료채널 전환의 동인을 갖는다. 이미 지상파방송 4사는 'DTV 코리아'를 통해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시청 설비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수신환경개선과 동시에 지상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적극적 협동이 필수적이다. 자칫하면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의지하는 '종편채널'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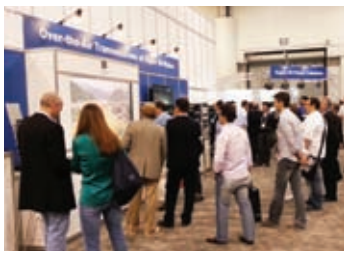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DTV KOREA, 채널 재배치 논의

DTV KOREA는 4월 15일 정부과천종합청사 4동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전환과 직원들과 업무협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방송전환과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채널 재배치 홍보계획 및 디지털방송콜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채널이 변경되는 지역에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고 있는 가구는 반드시 채널을 재설정해야 TV를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건이 관건이다. 채널 재배치는 전라권 6월 12일, 경상권 7월 16일, 수도권 · 강원권 · 춘천권이 10월 16일에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DTV KOREA 직원의 사기증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원 포상

정화섭 사무총장은 4월 5일 DTV KOREA 대회의실에서 협회 발전에 기여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우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여 포상을 실시했다. 조사통계팀 김윤지 사우는 디지털방송콜센터를 전담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자료를 분석해 시청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사원 포상은 직원의 사기 증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다.

NAB 2013, 방송기술 동향과 향후 차세대 지상파 방송기술 현장



'NAB 2013'이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NAB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전시회 현장에는 4K UHDTV 방송장비, 방송제작과 송출까지 IP신호 하나의 라인으로 복수채널을 컨트롤 하는 방송제작시설의 IP화, 휴대폰을 이용한 생중계 보도, 익스트림 스포츠 현장에서의 초소형 카메라 활용, 헬리캠을 이용한 제작 시스템 등 차세대 지상파 방송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공개됐다.

DTV KOREA 이사회 조직도

(2013년 4월 30일 현재)

회장	길환영 KBS 사장
이사	김재철 前 MBC 사장
	우원길 SBS 사장
	신용섭 EBS 사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
	이효건 삼성전자 전무
	노석호 LG전자 전무
감사	김승종 KBS 감사

시청자 밀착취재

"무료 지상파 방송 시청, 쉬워도 너~무 쉽네요~"

DTV KOREA에서는 지난 3월초부터 19세대이하 공동주택에 거주자들에 대한 공시청 무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신청자들이 적었지만 두 달째를 맞이하는 요즘 신청자들이 부쩍 늘어나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손길이 부쩍 바빠졌다.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난 봄날 직접수신인프라팀의 김공탁 대리를 따라 19세대이하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공시청 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위치한 현장을 찾았다.

김순희(가명)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신의 집에서 손자를 돌보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 어느 날 TV를 시청하다가 〈19세대 이하 공시청 설비 무료 지원 사업〉에 대한 공익광고를 처음 접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다세대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웠으나 지원대상이 100% 무상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기쁜 마음에 1644-1077로 문의했다고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10년 넘게 시청하던 유료방송을 해지하려 했더니 2015년까지 약정이 돼 있어 해지하려면 27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2015년까지래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냥 돈만 더 내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세상에! 3년을 더 보래. 27만원이야."라며 울분을 토한다. 작년, 유료방송사에서 고가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요금이 인상되면서 약정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유료방송 해지부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정작 연결된 곳은 타 지역이었다. "괘씸한게요. 인터넷에서 해지 부서를 찾아 연결을 했니 전라도 광주더라구요. 내가 여기 인천이니까 가까운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했더니 문자가 왔는데 경기도 수원이더라구요. 이건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되냐구요?"

순희씨는 그 때가 생각나는지 여전히 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국번없이 1335)나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옥상에서는 TV 수신이 원활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인천시 전역은 아날로그 전파가 미약한 지역이었으나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원활하게 전파가 수신되고 있다.

그렇지만 공사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공시청 시설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옥상에 안테나 지지대가 없어 지붕위에 새로운 지지대를 세워 안테나를 고정해야만 했다. 공사 담당자는 정확한 수신점을 찾아서 안테나를 설치해야 세대에서 문제없이 TV를 시청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안테나 설치가 끝난 후 각 세대에 TV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함을 신설했다. 이 장치함은 옥상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증폭하고 각 세대로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가끔 유선사업자들이 이런 설비를 파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때문에 훼손 방지를 대배해 증폭기에 훼손 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공시청 시설 설치가 끝난 후 세대에서 TV 시청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먼저 '자동채널설정'을 했다. 자동채널설정은 안테나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TV에 기억시키는 과정이다. 2~3분 후 자동채널설정이 끝나자 지상파 디지털 방송 6개 채널이 선명하게 수신됐다.

공사팀이 철수 준비를 하자 그녀가 망설이다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나중에 유료로 전환 되는 건가요?"라며 질문을 던진다.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로 수신할 경우 별도의 월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순희씨는 무료로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며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짓는다.

시청자의 밝은 얼굴을 마주한 DTV KOREA 직원들의 얼굴에도 보람찬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도 DTV KOREA는 지상파 플랫폼의 위기의식 속에서 시청자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